

“갑작스런 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 다리절단과 이혼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꿈꾸는 김병수(가명)님의 이야기.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족과 단란하게 살고 있던 김병수(가명)님은 어느 날 농기구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끝내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김병수님은 자포자기한 채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며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었던 삶에 대한 의지는 김병수님을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절단된 다리로 일반적인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파지를 주워가며 자활의 의지를 불태웠고, 희망을 나눌 새로운 배우자도 만났습니다.

절망을 딛고 새로운 삶을 꿈꾸는 김병수님의 희망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김병수님의 생계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병원 치료와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